여수 사도~낭도 잇는 인도교 올해 착공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사업비 360억 투입 2028년 준공
섬 관광 편의·주민 정주 여건 개선

여수시의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도와 낭도를 잇는 인도교 건립공사가 올해 착공된다. 사도 전경. 〈여수시 제공〉

여수 사도와 낭도를 잇는 인도교 건립 공사가 올해 착공된다.

시에 따르면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 건설공사 착공이 가능하게 됐으며, 공사는 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화정면 낭도리 499-2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60억원을 투입, 길이 892m 폭 3m의 인도교를 건립하는 것이다.

인도교가 설치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와 바다가 갈라지면 드러나는 '사도~추도 간 신비의 바닷길'까지 모두 육로로 둘러볼 수 있어 섬 관광 편의 제공은 물론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해저 퇴적층 분포에 따른 기초공사비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특히 문화재 보존에 초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섬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천년의 역사 속으로'…구례 지리산남악제

19일부터 이틀간 남악사·화엄사
군민의 날 행사도…화합 행사 다채

'제81회 지리산남악제'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남악사 및 화엄사 시설지구 등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다.

군민의 날 행사도 겸한 이번 축제는 총 4마당 29종목으로 나뉘어 열리며, 시가행진·체육행사·노래자랑·남악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 첫 날인 19일에는 군청에서 시작해서 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구례읍 시가행진으로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어서 공설운동장에서는 읍면별 특색 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군민의 날 기념식이 이어지며 이후 본격적으로 줄다리기, 400m 계주, 족구, 축구, 게이트볼, 씨름, 단체줄넘기, 파크골프, 한궁 시범경기까지 9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재경구례군향우회에서 200여 명의 향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줌에 따라 향우팀과의 친선 줄다리기 경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후 7시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군민 노래자랑이 열린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본선 진출자의 뜨거운 경연이 펼쳐지고, 재경구례군향우회원의 특별무대와 '지원이' 등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둘째 날 20일 오전 10시에는 천 년의 역사 동안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기원한 남악제례가 남악사에서 봉행 되고, 이후 장죽전 녹차 시배지에서는 헌공다례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화엄사 시설지구에서는 길거리 씨름대회, 읍면 윷놀이 대회, 농악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우리차 시음회, 전통 떡 만들기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례지부의 작품 전시회와 같은 문화예술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8일부터 24일까지 구례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의 전시회를 볼 수 있으며, 20일 오후 3시에는 구례읍 실내체육관에서 추억의 동춘서커스 공연이, 오후 5시에는 섬진아트홀에서 북한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백두한라예술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21일에는 제34회 전국 정가 시조경창대회가 열려 전국의 시조 명창분들이 구례를 찾아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천년동백축제 4000여 관광객 봄기운 만끽

이틀간 다채로운 프로그램 성료

제8회 광양천년동백축제가 4000여명의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8회 광양천년동백축제가 4000여명의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양동백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천년의 숲, 동백꽃 피다'라는 주제로, 광양시 옥룡면 옥룡사지 동백숲 일원에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개최됐다.

축제추진위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봄의 향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개막을 알리는 안전기원제와 전통적인 길놀이 공연이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즉흥 무대와 다양한 문화 공연들은 축제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특히 황민호·한강·지원이 등 유명 가수들의 초청 공연이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12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한 동백가요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채로운 재능도 선보였다. 또한 동백숲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진행된 어린이 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참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축제에 풍성함을 더했다.

아울러 도선국사마을 체험 프로그램 '떡메치기', '두부 만들기'에 참여한 가족들이 봄날의 즐거운 추억을 선물 받았으며, 추억의 보물찾기, OX퀴즈, 각종 부대행사 등을 통해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우홍 광양동백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옥룡사지 동백숲의 아름다움과 봄의 향기를 가득 담아갔기를 바란다"며, "광양천년동백축제가 많은 사람이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개최될 축제 준비에 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힘찬 시동

연수단 유럽 3개국 대학·식품회사 방문 육성 방안 모색 논의

순천시는 최근 덴마크의 '아그로 푸드파크'에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농식품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순천시가 최근 덴마크 등 유럽 3개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순천시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11명의 연수단을 구성, 지난달 31일부터 7일간 덴마크·네덜란드·프랑스를 방문했다. 방문 기간 중 연수단은 세계적인 식품산업 클러스터인 덴마크의 '아그로 푸드파크'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그로 푸드파크·와게닝겐 대학교 사례를 승주읍 일원에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는 순천시의 비전과 가장 맞닿아 있는 모델로 판단하고 다양한 접목방안을 찾았다.

덴마크 오르후스시에 위치한 '아그로 푸드파크'는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클러스터로, 전 세계 식품 공급의 7%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200여 개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와게닝겐 대학교'는 농업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대학으로, 20여 개의 농식품 연구기관과 2,600여 개 농식품 기업이 모여 형성된 세계적인 식품산업 클러스터인 푸드밸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푸드밸리의 경우 와게닝겐 농촌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 소득 모델을 만들어 소멸해 가는 농촌지역을 다시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순천시 연수단은 아그로 푸드파크와 와게닝겐 대학교 관계자와 그린바이오 산업 현안 및 협력 방안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기관에서 향후 'E-Bio 순천' 추진 시 노하우 제공과 공동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소멸하는 농촌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장래성 있는 산업의 선택과 양질의 일자리, 지역 주민 소득 모델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

497농가 2만2965마리 대상

곡성군이 오는 28일까지 관내 모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럼피스킨은 소에서만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신성 피부병 증상으로 인해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등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이번 백신접종은 곡성군 관내의 모든 한·육우 및 젖소 2만2965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임신 말기의 어미 소는 접종 유예 대상이다. 접종 방법은 농가의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해 접종하고, 오는 28일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50두 이상 전업농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14일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